

중국, 이란 제치고 석유 생산 4위

1억8940억톤으로 세계 생산의 5.4% ... 내수 50% 불과 수입 지속

중국이 지난해 이란을 제치고 석유 생산국 세계 4위에 등극했다.

중국 제일재경일보에 따르면, 중국 국토자원부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2009년 중국의 원유 생산량이 1억 8940억톤으로 세계 생산량의 5.4%를 차지했다고 발표했다.

2009년 생산량은 세계 4위였던 이란의 1억8600만톤보다 300만톤 많은 것으로 중국은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 미국에 이어 처음으로 석유 생산국 세계 4위에 올랐다.

그러나 중국의 생산량은 내수 3억9300만톤의 48% 수준에 그치고 있다.

게다가 2000년 이후 매년 5% 안팎 증가하지만 생산량은 유전 노후화 등으로 매년 1-2% 정도밖에 늘지 않아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석유 수입량은 매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중국의 석유기업들은 에너지 공급원 확보를 위해 해외유전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중국 정부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몇 년 전부터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등 지도부가 직접 나서 전방위적인 에너지 외교를 펼쳐온 중국 정부는 최근 국가 에너지 전략 수립과 총괄적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원자바오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에너지위원회도 신설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2/10>